

# 대우위니아 이주 직원들 고달픈 타향살이

### 사측, 천안→하남산단 본사 이전 당시 기숙사 등 복지 약속 허름한 모텔·오피스텔 기숙사로 운영...거주비 지원도 한정

충남 천안에서 광주 하남산단으로 본사를 옮긴 대우위니아가 이전 당시 했던 직원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고달픈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불편한 생활에도 내년부터는 지원까지 끊기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대우위니아지회 등에 따르면 대우위니아는 노조와 맺은 '공장이전 관련 특별합의서'에 따라 홀로 이주하는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부족하면 1인1실 기준의 임차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추첨을 통해 생산직(317명) 직원의 절반 수준인 140여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했는데 회사 밖 허름한 모텔과 오피스텔 3개를 고쳐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원범 노조 지회장 주장이다.

임차 아파트를 제공받은 경우도 27개 아파트를 빌려 직원 3명씩(1인당 방 1개) 공동 생활하는 형태로 머무르다보니 개인적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기숙사 추첨에서 탈락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공동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예전보다 많은 공공요금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 주장이다.

나머지 직원들도 월 15만원의 거주비를 지원받아 개인 숙소를 빌려 생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난 6월1일부터 18개월간 지원하겠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이 때문

에 기간이 지나 지원이 끊기면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직원들의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불편한 타향 생활에 자녀들의 교육 여건, 맞벌이 경제 상황 등으로 광주 이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다보니 매 주 금요일마다 광주 공장에서 천안, 평택으로 가는 귀향버스도 직원들로 가득하고 광주로 주소를 옮긴 직원은 40여명에 불과하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광주시가 '중견기업 광주 2도약'이라는 거창한 보도자료까지 내는가 하면, 지난해 이래적으로 대우위니아를 염두에 두고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

정해 '관외기업의 이전에 따른 50명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이주직업 보조금' 규정까지 마련했음에도 여태껏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반영됐다는 말이 나온다.

대우위니아 관계자는 "기숙사는 꾸준히 개·보수하고 있으며 거주비 지원 문제는 오는 10월 임금단체협상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나주시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 '2018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가 12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렸다. 20개의 에너지밸리 입주업체가 총 54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각 업체가 마련한 부스를 돌며 면접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제조업 절반 "최저임금 인상·근로 단축 부담"

### 상공회의소 136곳 설문...40% "신규채용 축소할 것"

광주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은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환경 변화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10곳 중 4곳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3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39.0%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최근의 고용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어느정도 부담된다'는 응답도 48.5%에 달했다. 10개 기업 중 8개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서는 '집중 근무시간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18.4%)거나 교대제 변경(11.8%) 등을 실시해 대응한다는 기업들도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과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점 등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1.0%에 달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41.5%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직원 급여를 줄이고 해외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20.8%에 달해 기업들의 불만을 엿볼 수 있었다.

상업의 또 이들 기업들에 대해 올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1년 전(66.4%)과 달리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

고 답한 업체는 33.8%에 머물렀다.

한편, 지역 제조업체들의 '올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 전망치가 전분기보다 5포인트 하락한 '103'으로 집계됐다.

기준치(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도체 경기와 계절 특수 영향을 받는 IT·전자와 식음료 업종의 지수 상승에 따른 것이며, 다른 업종들에서는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게 상의 분석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가가 현실화되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85.06 (+4.44)	↑ 금리(국고채 3년) 2.09 (+0.04)
↑ 코스닥 819.29 (+14.51)	↑ 환율(USD) 1125.90 (+5.90)

## 기준금리 年 1.5%...5회 연속 동결

### 미·중 무역갈등 과장 예측불허...성장률 2.9%로 하향

미중 무역전쟁과 고용확과 등 한국경제에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금리를 일단 동결했다. 한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그간 금융시장에서는 이번엔 금리 동결을 유력하게 봤다. 전날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금리를 올리기엔 경기 여건이 탄탄하지 않다는 평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에 그쳤다. 올해 초보다 올라왔지만 아직은 한

은 목표(2%)와 차이가 크다. 고용은 '쇼크'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10만6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고용 흐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악으로 평가된다.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 시계는 더욱 흐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대북정책을 포함해 국내외 여러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

사면초가, 전전공공과 같은 표현이 현재 한국경제 상황 묘사에 등장한다. 2년 연속 3% 성장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한

은은 이로써 다섯 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연합뉴스

## 청년들 여수중앙시장서 창업 기회

### 중소벤처부 '꿈뜨락 물' 개장...임대 보장·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12일 여수중앙시장에서 '꿈뜨락 물' 개장식을 진행했다.

꿈뜨락 물은 전통시장 및 상점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 넣어 젊은층을 유입, 시장의 활력을 찾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입점 청년상인들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됐으며 상품전열과 아이템 보완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 임대료 1년 지원, 5년 간 임대 보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개장한 여수중앙시장 꿈뜨락

물은 광주·전남 최초 청년몰로 29개 점포를 비롯한 회의실, 고객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청년들이 만든 80여종의 먹거리를 판매하고 교복대여, 흑백 사진관, 체험공방 등이 운영된다. 청년상인 중심의 뮤지컬 정기공연과 버스킹도 펼쳐질 예정이다.

김진형 청장은 "여수중앙시장은 노후 시설과 먹거리, 불거리가 부족해 젊은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며 "이런 청년몰 조성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고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시장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농어촌공사 '일하는 방식' 대통령표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사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ICT 지능형 전자수용재결시시스템'을 구축한 뒤 토지수용위원회와 연계해 수용재결 소요시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또 적기 보상을 통해 지가상승분 등 추가 관리비용 15억원을 절감하면서 업무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자수용재결시시스템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지가상승분 등 추가 관리비용을 연간 1013억원 상당 줄여 국고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